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시범 운영

도교육청, 오늘까지
각급 학교 대상 설명회
제도·운영계획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3년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제도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란 학교에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스스로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제 및 시범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타시도 운영사례 소개를 통해 도내 학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시범운영은 올해 8월 이후 정기(종합)감사 예정인 공립 유·초·중·고 86개교 중 학교장이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위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 8월 4일부터 교장·교감·행정실장·장학사·감사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IT를 구성해 6월 말까지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3~4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3년도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제도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별 일정에 따라 1·2·3단계 점검 및 확인을 하던 된다. 점검 항목은 교무·학사 10개 분야 36개 항목, 행정·회계 8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위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 8월 4일부터

교직원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감사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사항을 마련해 다음년도에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자율과 예방의 감사체계를 구축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직원들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감사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사항을 마련해 다음년도에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다문화가정 고교생 진로캠프 운영

전북대·전주대서 각각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문 인력을 갖춘 도내 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달 24~26일에는 전북대학교에서 그리고 지난 2~4일은 전주대학교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전문적인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의 핵심 분야인 미디어 관련 이해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 제작 실습 및 체험, 미디어 직업의 세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감과 소통의 스피치, 진로 콘서트, 언론사 견학 등이다.

또 전주대는 다문화사회와 인재 미



① 지난 달 24~26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진로캠프. ② 지난 2~4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진로캠프.

래사회와 대학 등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에게 자신과 대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영화방송학과·환경생명과학과·상담심리학과·관광경영학과·중등특수교육학과·패션산업학과 등에서 학과별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특별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캠퍼스내 물놀이장 운영

전주대학교 총장 박진배는 캠퍼스 내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시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된 것.

물놀이장은 전주대 창조관 일대에 위치하며, 오는 15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이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관련 문의는 전전년주 콜센터(063-120 또는 222-1000)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도교육청, 전문가 양성 과정 직무연수... 3~4일 이틀간 일반고 교사 4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직무연수는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3~4일 이틀간 전주대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총 30차시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관련 원격 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한 44명의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미래 교육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수업 중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 △진로·학업 설계 지도 사례 △고교학점제와 대입 △고교학점제와 학교 공간 조성 △분임별 활동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소속 교사들 중심으로 8개 소그룹을 편성해 분임별 활동도 진행한다.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은 관련 연수의 기획·운영·강의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교사들로 연수대상자에게 사전에 제시된 단위학교 2022·2023학년도 입학성 교육과정 분석 내용을 공유



전북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직무연수를 3~4일 이틀간 전주대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하고, 2024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실습을 이끌어 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단위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썩! 짹어 진로 로드맵 경진대회' 시상식

대상에 순창고 강동호 학생

우석대학교 총장 남천현(가)가 개최한 '썩! 짹어 진로 로드맵 경진대회'에서 강동호(순창고 2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강서포 입학처장과 조범준 교양대학장, 수상 고교생과 진로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와 동기유발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 결과 강동호 학생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구체성·표현력 등의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김보경(양현고 1년) 학생 외 4명이 최우수상을, 박소정(김제서고 1년) 학생 외 9명이 우수상을, 그리고 김혜진(세인고 3년) 학생 외 14명이 노력상을 받았다.

강서포 입학처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교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일본 과수산업 정책 변화 분석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성 제공

전북대 송준호 교수 '일본 과수산업 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출간

전북대학교 송준호 교수(식품유물화학)가 '일본 과수산업 정책과 해외시장개척'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 남부주대학 환경원예학부 환경원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경구 교수와 함께 쓴 이 책에서 송 교수는 우리보다 앞서 생산하는 물론 소비자의 고품질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과수산업 구조와 정책 변화를 분석, 우리나라 과수산업과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제공했다.

저자는 생산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소비자 니즈의 불일치를 매우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과수산업 정책과 국내 수요 확대 정책, 해외시장 확대 전략, 학교급식을 통한 수입 변화와 수출 시장에서의 일본산 유통 동향, 과수 경영 정책 전개, 과수 경영안정 관련 농업공제제도와 농업경영 수입 보험의 운용 실태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 Top 10을 검색하면 1위는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멜론이다. 다음으로 2위는 루비로만 포도, 3위는 덴스케 수박, 5위는 타이오 노타마고 망고, 7위는 네모난 수박, 8위는 샌비키야 딸기, 9위는 감출 품종인 데코폰, 10위는 세카이치사과 등으로 일본 과일이 무려 8개나 점유하고 있다.

과수산업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1.2배 많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액은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많다. 이는 일본이 우량 품종 중심으로 전환해 고품질 위주 과일 생산에 노력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높여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새 품종을 개발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일본의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싸고 질 좋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오히려 떨어져 프리미엄 과일의 소비감소와 수입 과일이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일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생산자가 추구하는 과수 농작업 간의 부조화로 인해 일본은 과일 생산 감소율이 소비 감소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과일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생산 측면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소비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수요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송준호 교수는 "이 책은 일본과 국내 과수산업의 비교를 통해 국내 과수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며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과수산업 종사자와 관계자가 일본 과수산업의 발전에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폭력 예방 정보 한눈에

도교육청 '늘품우리' 운영... 학폭 담당교사 운영 경험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예방지원 홈페이지 늘품우리(https://office.bedukr/woori)를 구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처리 및 위기학생 지원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으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늘품우리는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 지원 등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분야는 학교예방교육자료, 시간키리 절차, 피해학생 상담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의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상담기관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는 학교의 위기학생 지원사업에서부터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다들어줄까(자살예방)까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소개돼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 및 학교폭력 윈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현장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부모-자녀와 함께하는 썸머스쿨' 운영

도교육청, 웨일북 사용법·리터러시 교육 등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자녀와 함께하는 썸머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썸머스쿨은 웨일북 사용법 및 리터러시 교육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18일까지 3기 6회에 걸쳐 도교육청 1층 놀봄자리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적인 콘텐츠를 탐구하고 학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교수학습 애플, 온라인 강의, 창의적인 게임 등을 소개해 자녀들이 스마트기기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습과 놀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스마트기기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적절한 사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에듀테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